

성도의 교제 |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

○ 환영

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

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,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.

○ 알림

1.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

2.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.

실천사항 1: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.

실천사항 2: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.

3.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. (한국 식품/갤러리아 앞)

4. 새벽 예배는 화, 수, 금요일에 드려집니다(레위기 강해).

5. 최진기/김미경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.

6.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.

7. 고린도후서 4 장 16 절 (2024 년 8 월 성경 암송 구절)

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

8.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.

Cheque Pay to: The Refreshing Church

E-Transfer: rwgchurch@outlook.com

○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

E-mail: rwgchurch@outlook.com

Homepage: rwgchurch.ca

Tel.: 647-989-2546

Address: 2630 Inlake Court, Mississauga, ON L5N 2A7

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

홈페이지



YouTube 채널



목요성경공부



카카오채널



대한예수교장로회
실만한물가교회
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

주일 예배	오후 1:30	인도: 김윤규 목사
묵도 Choral Prelude		다함께
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기원 Invocation		인도자
*찬송 Hymn	32 장 (통 48)	다함께
*신앙고백 The Apostles' Creed		다함께
*교독문 Responsive Reading	20. 시편 33 편	다함께
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	찬 338 장 / 찬 336 장	다함께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봉헌 및 기도 Offering & Prayer	429 장 (통 489)	김윤규 목사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빌립보서(Philippians) 2:19-30 (p. 320)	인도자
설 교 Sermon		김윤규 목사

복음에 헌신된 사람들
People that are devoted to the Gospel

*찬 송 Hymn	341 장 (통 367)	다함께
*축 도 Benediction		김윤규 목사

*는 일어섭니다

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
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

(행 2:47)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
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

|| 말씀 노트 ||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

(행 16:1)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

(빌 2:19)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(빌 2:20)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

(빌 2:21)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(빌 2:22) 디모데의 연단(인품)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

(롬 14:8)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

(빌 2:23)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(빌 2:24)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

(빌 4:18)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

(빌 2:30)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

(빌 2:27)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(빌 2:28)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

(빌 2:25)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

(빌 2:29)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

|| 목회와 삶 || 믿음으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자

“하나님!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나를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비방할 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상대를 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?”

시편 55 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교훈시(마스길)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 자신의 동료이며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인하여 창자가 비비 꼬이는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(시 55:4).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국가의 정사(政事)를 의논하는 모사(謀士)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(대상 27:33),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믿음의 동료였습니다(시 55:14).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의 원수였다면 좋겠다고 한탄합니다(시 55:12).

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비둘기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(시 55:6-7), 현실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(시 55:4).

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(시 55:16).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였습니다(시 55:17). 기도 가운데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(시 55:18).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대적자들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(시 55: 19, 22).

가까운 친구로부터 악한 시선을 느낄 때에 그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.

(시 55:22)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